

우리는 **TRPG**가 하고 싶었을 뿐인데 룰북 대신 금서를 들고 와 버렸다

4인 3계제 / 리미트 1사이클

아직 테스트플레이는 하지 않았지만, 목표 플레이 타임은 **ORPG**로 ~~두시간 이내입니다.(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리였습니다. 아무래도 전투가 꽤 시간이 걸리므로 캐릭터메이킹/후일담 제외 순수 플레이에만 3시간 이상은 기본으로 생각해주세요.

PL 전원이 초보라는 전제 하의 마기카로기아 진행 설명용 시나리오입니다. 메타개그계열.

<전투의식>을 쓰자니 조사나 장면표, 드라마 장면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싶고, 그렇다고 리미트 2~3사이클짜리 세션을 하기에는 시간이 미묘해서 캐릭터 메이킹 설명 후 적당히 돌릴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이 아래로 **GM**파트

개변은 프리입니다. 인원, 에너지 데이터, 핸드아웃, 리미트 기타등등 모두 줄이건 늘리건 마음대로 고쳐주세요. 3인일때는 한 사이클로 돌기에는 조금 빠듯할 수도 있겠지만, 여튼 탁에서 즐겁게 플레이한다면 뭐든 OK입니다. 에너지 데이터는 3계제 PC가 별 고생 없이 빠르게 잡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으니 저계제/고계제에서 플레이할 경우 적당히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담으로 본래 단장의 이름은 단어 하나로 구성하고, 금서는 단장의 이름을 합쳐 구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본 시나리오에서는 메타개그+문서의 전달을 위해 단장의 이름을 <캐릭터 시트> <룰 파트>로, 이 둘이 합쳐진 금서의 이름을 <마도서대전 **RPG** 마기카로기아>로 하고 있으나, 위의 기본 규칙에 맞추어 GM님이 단장/금서의 이름을 바꾸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룰 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DM요청 알림을 못 보고 지나가는 일도 많으므로 멘션으로 DM 보냈다고 해주셔도 좋습니다.
@ff14_dasse

1. 배경

인계의 스터디룸 <코덱스>, TRPG를 하러 모인 다섯 명의 마법사.

RPG '마기카로기아'의 첫 플레이로 다들 설레고 있는데.. 아뿔싸, <암흑 문고>의 관리인 GM은.. 실수로 마기카로기아 룰북이 아닌, 룰북과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표지, 똑같은 사이즈의 금서 <마도서대전 RPG 마기카로기아>를 가져와버린 것입니다!

세션도 문제지만 금서가 풀려나 마법재액이 일어나는 건 더더욱 큰일! PC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금서 <마도서대전 RPG 마기카로기아>를 회수하기 위해 분과회를 결성합니다.

2. 무대

시나리오의 배경은 스터디룸 <코덱스>입니다.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은 자유.
오리지널 장면표를 사용합니다.

[[2]] 1+1. [펄블]이다. [펄블표]를 굴린다. 펄블을 알려주기 위해 펄블이라고 했을 뿐, 사실 장면표는 행위판정이 아니므로 펄블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장면에 별의 마소가 2점 발생한다.

[[3]] 셀프 바. 작은 책장에는 자기계발서 같은 것들이 꽂혀 있고, 커피, 티백 등이 준비되어 있다. 원하는 마소가 1점 발생한다.

[[4]] 혹시나 해서 창고의 문을 슬쩍 열어보니.. 오잉?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이 스터디 카페는 <문호>의 지부였던 모양이다. 그 장면에 별의 마소가 1점 발생한다.

[[5]] 오늘 '천애'가 자신을 보고 혀를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가던 것을 떠올린다... 이런 일이 생길 걸 봐 버린 걸까... 그 장면에 꿈의 마소가 2점 발생한다.

[[6]] 화장실. 세면대에서 물이 똑 똑 떨어져 내린다... 그 장면에 힘의 마소가 2점 발생한다.

[[7]] 앗.. 실수로 마스터를 '키퍼'라고 불러버리고 말았다. GM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랜덤한 특기를 하나 골라, 판정을 실시한다. 판정에 성공한다면 원하는 마소를 하나 발생시킬 수 있다. 실패하면, 「운명변전표」를 사용한다.

[[8]] 다른 방에서는 한창 스터디를 하고 있는지, 조곤조곤한 이야기 소리가 들려온다. 그 장면에 노래의 마소가 2점 발생한다.

[[9]] 창문 너머, 창틀에 비둘기 두 마리가 앉아 있다. 그 장면에 짐승의 마소가 2점 발생한다.

[[10]] 오늘 세션은 물건너 간 듯한 불길한 예감... 어둠의 마소가 1점 발생한다.

[[11]] 단장의 마력의 흔적을 따라가 문을 열어보니..! 헛, 그 방에서 모임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자신을 돌아본다. 여.. 여기가 아닌가; 이 장면의 장면 플레이어 [마력]이 1점 감소한다.

[[12]] 6+6. [스페셜]이다. 마력을 1D6 회복하거나, 변조 1개를 회복한다. 스페셜을 알려주기 위해 스페셜이라고 했을 뿐, 사실 장면표는 행위판정이 아니므로 스페셜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장면에 어둠의 마소가 2점 발생한다.

리미트가 1사이클이고, 세션에서 최대한 많은 플레이어가 직접 주문을 써보게 해주고 싶은 터라 마소가 자주+많이 발생할 수 있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3. 도입 페이지

3.1. 세션 당일

인간계의 스터디룸 <코덱스>. 갓 3계제가 된 마법사이자, TRPG플레이어인 PC들은 오늘 마법사 <GM>이 '마기카로기아'를 플레이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이란 ‘마기카로기’를 할 수 있다니 너무 설레요~~” 하고 GM은 기쁜듯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리필존에서 커피를 따르던 한 사람이 여러분을 힐끔 바라봅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시선을 피합니다. ‘왜 우리를 보는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카운터에서 알바생과 예약 확인을 하고 난 GM이 모두에게 얼른 방으로 가자고 재촉합니다.

핸드아웃 <알바생>, <행인>, <GM>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npc를 한 명 선택해 시나리오 앵커로 기입하고, 운명을 1점 상승시킵니다. 속성은 자유입니다.

3.2. <금서>

방으로 온 PC들.

“그럼 오늘 플레이할 룰은~ 말씀드렸듯이 마기카로기아라는 룰인데요”
그리고 지퍼를 연 GM의 백팩 속에서.. 무언가가 빠른 속도로 튀어나옵니다!

가방 안에 들어 있던 것은.. 마기카로기아 룰북과 똑같은 크기에,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표지를 하고 있는 금서 <마도서대전 RPG 마기카로기아>! 그리고 룰북.. 아니 금서는 스터디룸의 다른 방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PC들은 즉석 분과회를 결성하여 금서를 회수하기로 합니다. 분과회 결성, 마력의 결정을 진행합니다.

4. 메인 페이지

4.1. 서적경

<행인>의 비밀이 밝혀졌을 때 발생하는 마스터 장면입니다.

“마기카로기아를 하러 온 TRPG 플레이어들인가... 확실히 재미있는 룰이지.. 마기카로기아...”
“하지만 인세인도 재미있다고!!! 모두 공포판정을 해라!!!”
서적경 <봉세마왕>이 pc에게 전투를 걸어옵니다.

「봉세마왕」		3랭크
공격력:2/방어력:3 / 근원력:2		마력 : 6
영역: 꿈		특기 : <혼돈><광기><배신>
진정한 모습 없음.		
마법	긴급소환 기사소환 변이 장난 뿔피리	소환 / 가변 소환 / <광기> 주문 / <혼돈> (범용) 주문 / <배신> (학파마법-혼혈주의자) 장비 / X (범용)

집중방어를 쓰거나, 저항에 혼의 특기를 쓰거나, 모두 같은 숫자로 플롯을 해본다거나, 주문을 사용하고 저항판정을 시킨다거나. 이래저래 다양한 플레이를 예시로 보여줍니다.
마법전이 종료되면 서적경의 봉서를 실시합니다.

5. 클라이막스 페이지즈

1사이클이 모두 지나면 클라이막스 페이지즈에 돌입합니다. **PC**들은 우리가 빌린 방에서, 책상에 엮어져 있는 **GM**을 발견합니다. **PC**들이 말을 걸면 그는 힘겹게 말합니다.

“아아.. 단장.. 모아주셨군요.. 저 대신... 금서 회수를... 부탁드립니다...”
“모두에게..마기로그... 꼭 먹여주고 싶었는데....”

그리고 **GM**은 눈물을 흘리며 책상에 털썩 쓰러집니다.
그는 그저 오늘 **TRPG**를 하지 못한다는 슬픔과 절망에 정신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장을 <금서>로 만들어 회수하는 것 뿐.
금서 <마도서대전 **RPG** 마기카로기아>와 전투를 시작합니다.

6. 엔딩 페이지즈

금서를 무사히 회수한 여러분은 그것을 대법전에 전달합니다.

“다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휴, 제가 한심하게 룰북 대신 금서를 들고와서 그만...”
“오늘은 못 했지만, 다음에는 꼭 룰북 제대로 가져와서, 같이 마기로그 해요!”
GM은 그렇게 말하면서 작별인사를 합니다.

과연 오늘 세션을 못 한걸까? 묘한 기분을 느끼며 **PC**들은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7. 핸드아웃

<알바생> 스터디룸 <코덱스>의 알바. 우자. 공시생. 꿈은 공무원이 되어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사는 것이다.	비밀 알바생은 단장 <캐릭터 시트>에 병의된 상태다. <table><tr><td colspan="2">단장 <캐릭터 시트></td><td colspan="2">병의 심도 : 0</td></tr><tr><td>공:3</td><td>방:3</td><td>근:3</td><td>마력:4</td></tr><tr><td colspan="2">영역 : 꿈</td><td colspan="2">특기 : <희망></td></tr><tr><td>마법</td><td>[기사소환] [불꽃]</td><td colspan="2">소환/ <희망> 주문/ <희망></td></tr></table>	단장 <캐릭터 시트>		병의 심도 : 0		공:3	방:3	근:3	마력:4	영역 : 꿈		특기 : <희망>		마법	[기사소환] [불꽃]	소환/ <희망> 주문/ <희망>	
단장 <캐릭터 시트>		병의 심도 : 0															
공:3	방:3	근:3	마력:4														
영역 : 꿈		특기 : <희망>															
마법	[기사소환] [불꽃]	소환/ <희망> 주문/ <희망>															
<GM> 3계제의 마법사. 오늘 세션의 GM...이지만 룰북을 잘못 가지고 오고 말았다. 아아... 어렵게 잡은 세션인데...ㅠㅠ	비밀 “그리고보니 마소가 부족하겠네요... ‘전송’해 드릴게요.” GM은 자신의 마도서에 있는 마소를 조금 나누어 주겠다고 말한다. 이 비밀을 밝힌 PC는 원하는 마소를 2점 획득할 수 있다.																
<행인> 세션을 시작하기 전 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를 힐끔힐끔 보던 사람. 혹시 저 사람도 티알피지 하는 사람인가...?	비밀 행인은 주말 스터디룸을 전전하며 금서<인세인>을 찾고 있는 혼혈주의자의 서적경 <봉세마왕>이다. ...사실 인세인에 봉세마왕이라는 건 없다. 단장 <룰 파트>를 가지고 있다. <table><tr><td colspan="2">단장 <룰 파트></td><td colspan="2"></td></tr><tr><td>공:4</td><td>방:2</td><td>근:3</td><td>마력:5(4)</td></tr><tr><td colspan="2">영역 : 꿈</td><td colspan="2">특기 : <이야기></td></tr><tr><td>마법</td><td>[사본] [주문 영역]</td><td colspan="2">주문/ <이야기> (서공) 장비 (금서/황혼선서)</td></tr></table> ※금서마법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단장 상태에서는 마력이 4가 됩니다. 마스터가 황혼선서가 없다면 ‘주문 영역’대신 다른 마법을 자유롭게 선택해도 좋습니다. 플레이어 분들은 이미 룰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하실텐데 너무 효과가 복잡한 것보다는 ‘사첩’ ‘망아’ ‘홍조’ 등이 어떨까 싶습니다.	단장 <룰 파트>				공:4	방:2	근:3	마력:5(4)	영역 : 꿈		특기 : <이야기>		마법	[사본] [주문 영역]	주문/ <이야기> (서공) 장비 (금서/황혼선서)	
단장 <룰 파트>																	
공:4	방:2	근:3	마력:5(4)														
영역 : 꿈		특기 : <이야기>															
마법	[사본] [주문 영역]	주문/ <이야기> (서공) 장비 (금서/황혼선서)															

8. 사족

NPC의 연령/성별은 적당적당히 GM이 마음에 드는 대로. 이름도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다. (‘GM’대신 자신의 닉네임을 조금 바꿔서 넣는다던가)

장면표로 마소가 발생했을 때 or GM의 비밀이 밝혀졌을 때에는 마소의 충전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GM의 비밀이 밝혀졌을 때에는 <속주(컨트립)>와, 속주 중 하나인 <전송(트랜스퍼)>에 대해 설명해봅시다.

단장 <캐릭터 시트>, 서적경 <봉세마왕>과의 전투를 하면서 단장은 랜덤플롯, 서적경은 GM의 플롯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전투 후 각자의 박탈/봉서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서적경과의 전투에서는 GM이 직접 혼의 특기를 사용해서 혼의 특기에 대해 설명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체력이 상당히 빠진 PC가 있다면, 속주 <치료(에이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